

KOBAS 2017
REVIEW

전시업체 Interview

글.
방송과기술 편집부

AJA



이광희 디브이네스트 대표(좌)와 Robert Stacy, AJA APAC, General manager(우)

우선 AJA 제품의 특징과 세계적 현황을 방송과기술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JA는 26년 동안 방송용 컨버터와 주변기기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교육용, 군사용,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AJA의 주요 분야는 표준 방송입니다. AJA는 하나의 단일 캠퍼스 내에서 제조와 세일즈, 유지보수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버그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JA는 200여 명의 스태프가 있으며 이 중 90%는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회사이고,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위해 AJA는 사용자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보유한 자체 테스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피드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경우처럼 샘플을 가지고 출고 전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제품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실제 동작 테스트를 수행하여 통과한 제품만 출고하는 까다로운 전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JA 제품이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 디브이네스트가 총판을 맡게 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요?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2017년 5월 UHD 지상파 방송 시작을 비롯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AJA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총판으로 합류하게 된 디브이네스트는 이러한 AJA의 관점을 한국 시장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진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AJA 본사에서는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과 고객 방문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보상판매 진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AJA 본사와 동일한 워런티 정책을 제공하여 최대 5년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NAB 2017에서 발표한 AJA의 신제품들



제품의 이름이 짧은 편인데(HELO, KUMO, KONA, CION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름이 짧은 것이 더 기억하기 쉬워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덕트 마케팅 파트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고객이 더 쉽게 기억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NAB 2017에서 AJA는 FS HDR과 Ki Pro Ultra Plus 등을 발표했습니다. 4K/UHD에서 HDR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4K/UHD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AJA에서는 이미 4K/UHD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4K(4096×2160)와 UHD(3840×2160)를 모두 레코딩 할 수 있는 Ki Pro Ultra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Ki Pro Ultra Plus의 경우에는 4채널 HD 동시 녹화 모드가 추가

되었으며 HDMI 2.0 입출력을 통해 고화질 레코딩 및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FS HDR은 지난 NAB 2017에서 기술적인 프리뷰 제품을 소개한 상황이며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방송사와 프로덕션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FS HDR은 HDR과 SDR, 그리고 카메라 메이커의 다양한 로그 감마를 HDR로 실시간 컨버팅 할 수 있는 최초의 제품으로 정식 제품 출시 시기는 8월 말 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KONA 4, KONA IP, Io 4K와 같은 4K 입출력을 위한 I/O 제품군이 있으며, 12G-SDI 컨버터를 비롯해 HDMI, SDI, IP, Fiber 인프라인 다양한 컨버터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JA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변환기술, 즉 컨버팅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의 신호를 다른 것으로, 또는 IP, SDI, Fiber 등 서로 다른 인프라와 구조를 상호변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AJA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12G-SDI, HDR, IP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AJA는 고객들의 피드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 SONY - Instant HDR Workflow



변상혁 부장, SONY Media MKT & ENG Department

SONY HDR에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니의 HDR 제품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습니다. 첫째는 촬영 후, 후반작업을 하는 드라마 같은 장르물이고, 둘째는 스포츠와 같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장르입니다. 시스템 카메라부터 영상을 확인하는 모니터 그리고 감마인 S Log3를 통해 최적화된 라이브 방송을 HDR로 제작하는 워크플로우를 서비스하여 보다 쉽게 HDR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SONY 부스는 HDR 촬영에서 TV수상기로 HDR 콘텐츠를 시청하는 전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타사의 HDR 워크플로우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SONY의 HDR은 촬영부터 HDR 콘텐츠가 온에어 되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워크플로우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HDRC-4000과 같은 컨버터를 통해 HDR/SDR, 색공간의 변화를 쉽게 관



HDR 실시간 컨버터인 HDRC-4000



PXW-Z150와 소니 부스

리 가능하고 에어매칭(Air Matching)을 통해 제작과 송출 Look 관리도 용이합니다.

부스를 돌아보니 Instant HDR이 눈에 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HDR을 보다 쉽고 보편적으로 즐기기 위해 SONY에서 Instant HDR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K HDR 촬영이 가능한 핸드헬드 캠코더인 PXW-Z150, PXW-FS5 기종을 통해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서 HLG를 선택하여 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면 손쉽게 HDR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하는 카메라 라인업 제품엔 HLG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일단 PXW-Z150, PXW-FS5 두 제품에 먼저 적용을 하였고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거 PXW-FS7과 같은 경우,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해상도 및 컬러스페이스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후속 제품 출시에 이런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했듯이 앞으로도 시장 상황 및 고객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ONY의 HDR 시장 대응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HDR이 대세의 화두가 되고 올해 더욱 도드라진듯합니다. HDR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제품군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HDR 관련 Alliance를 통해 타사와도 협업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Grass Valley



인기환 삼아GVC 대표(좌)와 Somu Patil, Grass Valley Vice President Sales Asia(우)

아시아시장은 넓기도 하고 다양한 방송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시장은 정말 국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국의 경우 4K/UHD라는 앞선 기술을 방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HD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Grass Valley는 각 국가에 맞는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IP 기반의 신기술 탑재한 최신의 장비들도 준비하여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과 이번 KOBAS 전시회에 대한 느낌과 주요 전시제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이내믹하고,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시장인 한국의 KOBAS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많은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Grass Valley의 IP 기반의 4K End-to-End 솔루션을 보여 드리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네이티브 4K 이미지와 HDR



을 지원하는 LDX86N 카메라, IP/SDI 라우팅과 프로세싱, 멀티뷰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GV Node,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비디오 스위처, EDIUS .v8.5 버전과 K2 DynoS 컨트롤러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Grass Valley는 AIMS 주요 멤버로서 IP 기반의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며, 새로운 기술표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SMPTE 2110 기술표준으로 이제는 25G 비압축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Grass Valley의 IP 솔루션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Grass Valley는 새로운 IP 기술 표준에 대응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발 빠르게 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IP가 가지는 장점들을 계속해서 방송기술에 접목하고, SMPTE 2022-6을 시작으로 TICO 압축기술 채택에 이어, SMPTE 2110의 새로운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을 이미 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12~18개월 내 새로운 표준 성립과 이를 반영한 제품들이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K/UHD는 해상도 보다는 HDR 구현으로 HD와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HDR 제작 상황은 어떠한지?

언급하신 HDR이 다가올 방송 제작 환경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표준들이 정해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으나, Grass Valley의 경우 LDX86N 4K 카메라와 LDX82N HD 카메라 모두에 HDR이 적용되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HDR 제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와 함께 한국 고객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KOBA 부스에서 한국의 주요 고객들은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언제나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Grass Valley 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Panasonic -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



쿠라마 타카시 본부장(우)과 쿠니히로 오카지마 중간(좌)

KOBIA 2017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파나소닉 부스 2층에 마련된 미팅룸에서 파나소닉의 방송시장 전략과 KOBIA 2017 전시회 관해 서 인터뷰가 있었다. 파나소닉의 상품사업본부장 쿠라마 타카시, 신 흥시장영업과 쿠니히로 오카지마 중간을 모시고 오후 3시부터 진행하였다.

이번 KOBIA 2017 방송장비 전시에서 파나소닉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로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사용될 장비들을 주로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장비들을 AR 존, 프로젝션 존, 스위처 존, 리모트 존 등 사용 형태별로 구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한국 방송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방송시장은 기술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분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큼니다. 전체적으로 얼리어답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요?

파나소닉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을 주요한 목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중저가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파나소닉은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은 파나소닉에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

급했듯이 한국시장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저가에 대한 요구보다는 고성능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곧 UHD 본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항상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HD로 전환될 때를 떠올려 보아도 LG, 삼성 등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빠르게 HD 디스플레이를 보급하였고, 방송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UHD 디스플레이가 이미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스피드라면 빠르게 UHD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GH5는 4K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판매량도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GH5 미러리스 카메라는 프로슈머 제품입니다. NAB 2017에서도 화질과 사용 편의성 부문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 모델인 GH4의 경우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의 경우와 비교하여 스틸 기능은 별로였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GH5의 경우 전작의 우수한 동영상 촬영 기능뿐만 아니라 스틸 기능에서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4K 60P 화질로 촬영되는 모델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방송시장의 가장 큰 기술적인 이슈는 신호전송과 HDR 기술로 보이는데요. 2가지 분야에 대한 파나소닉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신호전송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12G-SDI 기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IP 기술의 경우 Delay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G-SDI와 IP 기술방식 모두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카메라가 아닌 분야에서는 파나소닉도 이미 IP 기술방식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HDR의 경우 카메라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HDR은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나소닉의 경우는 V-Log라는 자체적인 커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2017년 목표와 향후 100년을 예상해 보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파나소닉의 회계연도 기준은 4월입니다. 내년 2월에 있을 평

창 동계올림픽이 이번 회계연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인 파나소닉은 파나소닉만의 기술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설명은 올림픽준비위원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제공될 여러 가지 새로운 영상과 효과들을 파나소닉의 기술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제조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점차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년을 예상해 보자면, 파나소닉은 99년 전 백열전구 소켓을 제조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장비 등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은 9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향후 100년 후에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OBA 2017
REVIEW

KOBA Photo Sketch KOBA 주요 업체 전시와 장비 사진



- 1, 2 전시된 제품을 체험해보는 KOBA의 참관객들
- 3 이번 KOBA에서는 메이커 사운드의 부스를 볼 수 있었다
- 4 사운드스는 대형LED를 부스 전면에 내세웠다
- 5 무대조명의 레이저 전시 부스
- 6 1, 3층 전시장 입구에서는 데일리뉴스와 홍보자료를 얻을 수 있다
- 7 대형LCD창의 조명 콘솔
- 8 전원장치로 가득한 전시 업체 부스





- 1,2 매트릭스미디어의 스튜디오 무인카메라 제어시스템은 전시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 3,4 디브이네스트는 AJA 전시 반대편을 NewTek 부스로 꾸몄다. NewTek의 IP 시리즈와 Tricaster가 전시되었다.
- 5 필름스캐닝을 전시한 블랙매직디자인
- 6 인터넷방송의 MCN 방송 서비스 중인 판다티비방송
- 7 아비드 시스템을 전시한 에스앤티솔루션
- 8 고일은 부스 한쪽에 LiveU 제품을 새로 전시했다.



1



2



3



4

- 1 고객에게 전시 컨셉을 설명하는 박용석 동화AV 대표
- 2 12G-SDI 지원 케이블과 관련 솔루션을 선보인 벨덴 부스
- 3 캐논 XF205의 팬틸트 시스템
- 4 다양한 12G-SDI 솔루션을 선보였던 For.A
- 5 취급하는 여러 영상제품을 선보인 SAEKI P&C
- 6 KBS 부스의 MPEG2-TS Smart Analyzer
- 7 Evertz의 IP 솔루션을 전시한 PI 인터내셔널
- 8 ROSS의 제품을 볼 수 있었던 전시장 C홀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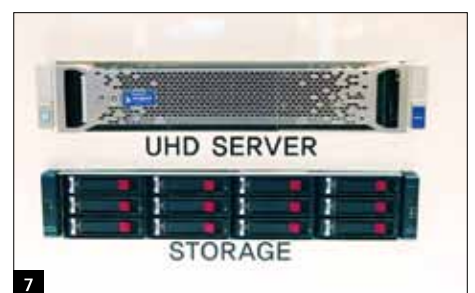
7



8



- 1 Imagine Communications, mediaproxy, IPsec 등의 브랜드 제품을 전시한 비에스솔루션스
- 2, 7 Imagine Communications의 4K/UHD 비디오서버와 프로세서 등을 전시했다
- 3, 4 로드테크놀로지는 Supertron의 방송용 모니터 신제품을 전시했다
- 5 포스티엄코리아는 방송용모니터와 ATOMOS의 레코더 등을 전시했다
- 6 방송용 케이블, 커넥터, 광전송기기를 전시한 한국카나레





- 1, 2 재인엠앤씨는 harmonic의 송출서버와 스토리지 등과 Minnetonka, Capella 솔루션을 전시했다
- 3, 4 Grass Valley의 GV Node와 GV Convergent 등 IP 워크플로우를 선보인 재인엠앤씨
- 5, 6 파나비전 렌즈를 마운트한 ARRI 카메라들
- 7 새로운 4K 렌즈를 전시한 fujifilm
- 8 12G-SDI & IP 자원 계측기를 선보인 LEADER





1



2



3



4



5

- 1, 2 시온미디어는 자사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고, 캠프 대신 CLARK 케이블을 새로 취급한다.
- 3 IP 기반 방송솔루션 - Cinegy Solution
- 4 Haivision의 Media Gateway와 KB Mini
- 5 비압축 전송을 지원하는 리델의 솔루션들
- 6 LYNXtechnik의 3G/HD/SD 쿼드 멀티뷰어
- 7 Ikegami CCU-430의 입출력 단자들
- 8 소니의 2세대 옵티컬 디스크 아카이브



6



7



8

KOB A 2017
REVIEW

기술시연회 및 세미나

고일, ARRI ALEXA SXT 최신 업데이트 발표

글.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과장(방송과기술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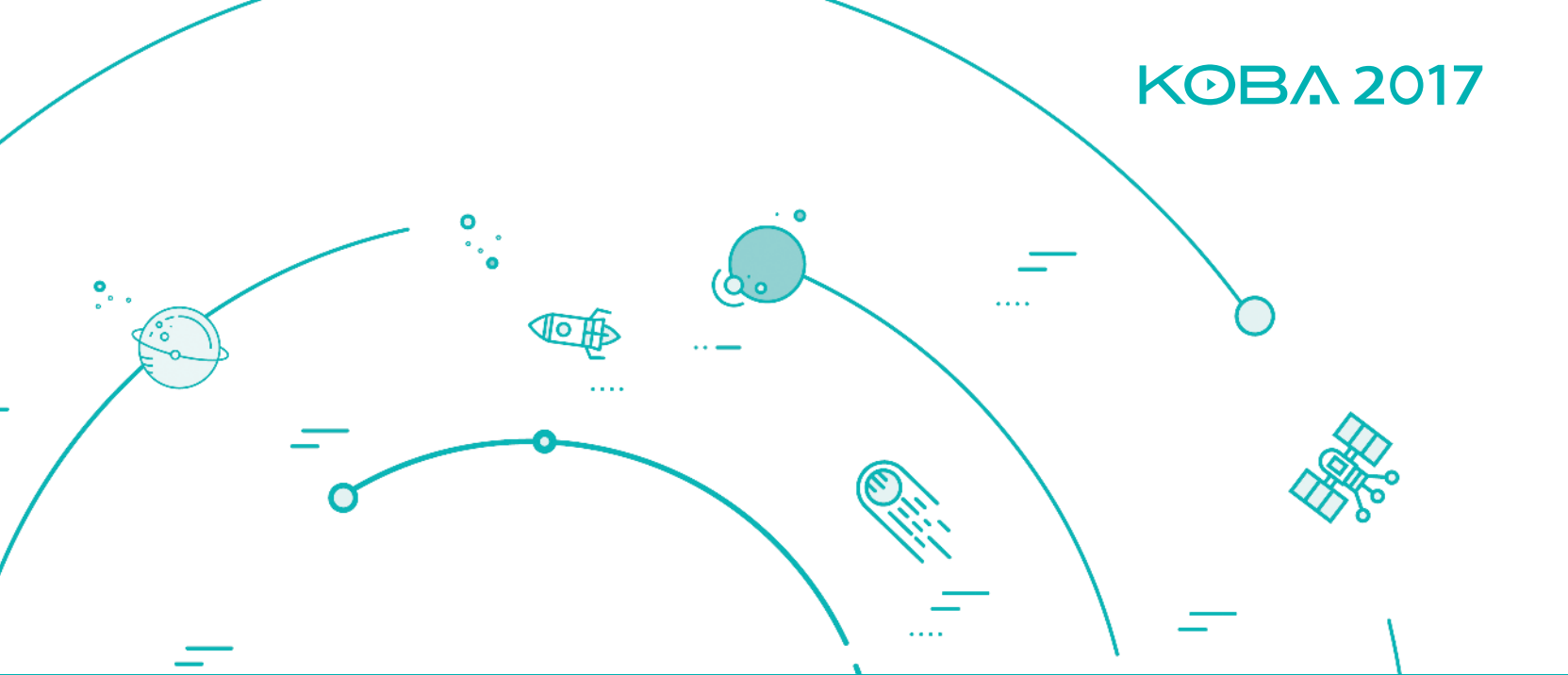
(주)고일은 작년에 이어 이번 KOB A 2017에서도 세미나를 열고 ARRI ALEXA SXT 최신 업데이트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셋째 날인 18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24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카메라 및 렌즈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MR. Chu, Carlos(Senior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NEA)와 김태정(Business Development Manager) 본부장의 설명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작년 세미나에서 새롭게 출시된 MA28/T1.9, MA180/T2.8 아나모픽 렌즈와 ALEXA SXT 카메라를 공개하였다면 올해에는 최신 업데이트된 ALEXA SXT 이슈사항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ALEXA XT 모델을 대체할 SXT(Super Xtended Technology) 시리즈는 EV(Entry Version), Plus, Studio 세 종류로 출시되었다. ALEXA 65의 전자장치 및 영상 처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안정성을 추구하였고 기존



ARRI ALEXA SXT의 영상 상영





의 기능에 더해 HDR 모니터링, 두 개의 아나모픽 ProRes 녹화 포맷(2K 및 4K, 모두 내장형의 Desqueeze를 통한 아나모픽 촬영), 120fps를 구현하는 ARRIRAW 3.2K 녹화포맷, Open Gate ProRes 3.4K 녹화 포맷 등이 가능하여 레버넌트, 버드맨, 그라비티 등 많은 촬영 감독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출시 이후 화질과 현장 및 편집 과정에서의 워크플로우 피드백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온 ARRI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품질을 더욱더 개선해 내었다고 김태정 본부장은 설명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8개의 녹화 포맷에 새로운 6개의 포맷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센서 모드(16:9, 6:5, 4:3, 오픈게이트)에서 ARRIRAW 또는 ProRes 레코딩이 가능해졌다. 16:9 센서 모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ProRes 4K UHD로 3840×2160 픽셀의 초고화질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그 외로 오픈 게이트 ProRes 4K Cine 및 3.4K, 6:5 ProRes 4K Cine 및 2K 아나모픽, 16:9 ARRIRAW 3.2K가 추가되어 예산, 목표 시장, 해상도 요구사항, 화면비, 렌즈 등 현장에서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강조하였다.



ARRI ALEXA SXT Camera & Anamorphic Lens

ALEXA SXT는 HDR(High Dynamic Range) 디스플레이 기술과 120fps까지 녹화가 가능한 HFR(High Frame Rate) 기술로 넓은 WCG(Wide Color Gamut) 신호를 기록하기에 Rec 2020과 같은 새로운 색상 공간 기준에 적합한 이미지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부드러운 ARRI 노이즈 감소 ANR(ARRI Noise Reduction)과 고급 결함 픽셀 교정, 넓어진 레인지의 3D LUT 내장

록이 추가되어 개선된 화질이 기대된다고 김태정 본부장이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SXR Capture Drive는 우수한 신뢰성, 빠른 속도, 고용량을 확보해 주며 광범위한 미디어를 지원하는 XR, SxS PRO 및 PRO+카드, CFast 2.0 카드 등이 추가된 새로운 미디어 베이가 특징이다. 그 밖에도 메타데이터에 저장되는 룩 파일과 룩 매니지먼트는 촬영감독의 현장 룩을 촬영본 및 편집 영상에서 유지 및 공유가 가능해 졌으며 HDR 모니터링, 4개의 독립 모니터링 출력, Rec709 또는 2020 출력 등 매우 유연한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제품 출시 등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ARRI의 내년 세미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